

북한의 여성교육과 여성상: 「교과서」와 「조선여성」에 나타난 여성상을 중심으로

김병로(통일연구원), 장인숙·황애리(이화여자대학교)

◁ 목 차 ▷

- I. 서론: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II. 북한의 여성정책과 여성상의 변화
- III. 북한 여성의 학교교육
- IV. 북한 여성의 사회교육
- V. 결론 및 남북여성교류에의 시사점

I. 서론: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결실을 맺었으며, 남북공동선언의 첫 이행의 단계인 남북한 이산가족의 상봉이 두 차례나 성사되었다. 이제 남북한 관계는 적대와 대립의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협력적인 평화관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전환점에 서있다. 이러한 남북한관계의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통일논의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남북한이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듯이 통일논의는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제4항)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그 동안의 통일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군사적인 부분에 주로 집중되어 왔다. 예컨대, 1945년부터 1986년 말까지 40년간 국내에서 나온 북한 및 남북한 및 통일관련 연구 가운데 사회·문화·교육 관련 연구는 전체 7천9백59편 중 4백95편으로 5.6% 정도에 불과하다.¹⁾ 이러한 연구 경향은 지금까지의 남북관계가 남북한 사이의 공존을 위한 모색보다는 이념적인 우월성의 강조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했음을 드러낸다. 남북한 관계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남북한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호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이는 인간의 삶이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북한 사회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관심은 통일 논의에서 거의 제외되었다. 북한여성을 주제로 한 연구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여성 연구물은 논문 105편, 단행본 27편, 학위논문 16편으로 총 148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1945년부터 1994년까지 나온 전체 북한관련 연구물 총14,899편 중 1%에 불과한 실정이다.²⁾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남북한 여성교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그러나 주된 연구 분야는 북한가족연구, 북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연구, 북한 여성의 정책 및 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북한 여성의 교육이나 여성상을 다룬 연구는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하여 연구가 저조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북한의 여성상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숙자는 “북한의 사회교육을 통해 본 여성상”에서 교과서에서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여성상을 ‘첫째, 노동하는 어린이상, 둘째, 주체적 어린이상, 셋째, 집단주의적 어린이상, 넷째, 혁명적 낙관주의적 어린이상’으로 분석하였다.³⁾ 또한 김인영의 “북한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북한 여성 교육의 강조점으로 ‘첫째, 노동하는 여성, 둘째, 주체사상적 여성, 셋째,

1) 김귀옥, “북한사회 연구의 동향과 쟁점안” 참조.

2) 함인희, “북한여성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 창간특집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연구협동과정실, 1998. 5. p. 36.

3) 전숙자, 『여성학 논집』 제11집. 1994.

집단주의적 여성, 넷째, 전통적 여성'으로 분석하였다.4) 김귀옥의 “동화와 교과서 속의 여성상” 등 여성에 관한 연구는 북한의 아동교육과 학교교육에서 지배적인 여성상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시도도 있었다.5) 초기의 연구는 여러 문헌에 나타난 여성상을 분석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교육 체제에서 밝히고 있는 북한 교육이 추구하는 ‘상’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북한문헌에 반영되어 있는 여성상의 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조선녀성」에 나타난 여성상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황은주는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조선녀성」분석을 중심으로 한 “북한 성인여성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에서 북한 여성의 생활을 경제생활과 가정생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6) 경제생활 영역은 공장, 협동농장, 가내작업반, 전문직, 서비스직, 가두지원대로 분리하여 살펴보고 있으며, 가정생활 영역은 어머니, 며느리, 아내의 역할 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경하는 “「로동신문」, 「조선녀성」에 나타난 북한의 여성상”에서, 크게 사회적 영역에서의 북한의 여성상과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과 여성상으로 분류하였다.7) 사회적 영역에서의 여성상을 다시 노동의 주체로서의 여성, 혁명의 역군으로서의 여성, 사회주의 생활문화와 여성상으로 보았고,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과 여성상은 혁명적 어머니상, 가족관계와 동지적 부부관계로 나누었다.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북한 여성상에 관한 연구의 문제점은 첫째,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가 저조한 실정이며, 진행된 연구마저 차별성을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 강조하는 북한여성교육은 ‘여성’ 교육의 특징이기보다는 북한이 추구하는 교육의 일반적 특징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부족함이 보인다. 셋째, 북한 여성상에 대한 연구를 남녀 차별적인 관점으로 단순화된 연구가 많다. 예컨대, 「조선녀성」에 나

4) 김인영,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7.

5) 김귀옥 외,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있을까』, 대동, 1997. pp. 183~214.

6) 황은주. “북한 성인여성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조선민주녀성동맹’과 『조선녀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7) 이경하, “「로동신문」, 『조선녀성』에 나타난 북한의 여성상 -1985년부터 1992년까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타난 여성상의 연구는 구분 방식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여성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 여성에 관한 연구는 1차 자료의 내용상 부족과 이로 인한 2차 연구의 부재로 북한여성에 대해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성과를 찾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교육을 통해 추구하고 있는 여성상을 분석하였다. 교육이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하여 갖는 관심과 기대의 표현이며, 교육 속에는 한 사회가 추구하는 문화체제의 지향이념과 가치가 매우 깊게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한 방편으로서 북한여성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북한여성교육이 어떠한 여성상을 구현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문화란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는 교육의 요소가 필연적으로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수단이 되는 「교과서」와 「조선녀성」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학교교육은 교과과정에서 여성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교육은 무엇인지 또한 교과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가 어떤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러한 여성상을 실현하기 위해 여학생만을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과 과정인 '녀학생 실습'도 살펴보았다. 한편, 북한이 사회교육에서 추구하는 여성상은 「조선녀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선녀성」은 북한내에서 여성들만을 위해 공식적으로 발생하는 유일한 잡지이고, 각 직장이나 여맹에서 여성들에 대한 교육용으로 활용되는 매체이기도 하다.⁸⁾ 따라서 이 잡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사회가 북한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여성상은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통일 논의에서 소외되기 쉬운 남북한 여성들이 통일의 주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작업

8) 북한은 여성해방이념이 대부분 신문, 계간지와 같은 매체를 통해 제시되어 사회성원을 교육하거나 조직화한다.

은 중요하다. 이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소외됨 없이 살 수 있는 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통일의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교과서」와 「조선녀성」에 나타난 여성상의 분석을 통해 북한여성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남북여성교류에 시사하는 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90년대 개정된 「교과서」와 가장 최근에 발행된 「조선녀성」에 한정시켜 살펴볼 것이다. 즉 본 논문은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가속화된 1990년대에 북한이 어떤 여성상을 강조했는가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시기를 한정시키는 것은 북한 정권의 최대 위기상황인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여성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II. 북한의 여성정책과 여성상의 변화

북한은 사회주의건설이래 일련의 국가정책들을 실행해왔다. 북한의 여성정책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국가정책의 하위부문으로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는 노동력 동원의 일환이었으며, 북한 체제 안정기에는 가정과 사회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북한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사회주의 혁명 초기인 1946년 봉건적인 가부장제를 타파하는 가족구조의 개혁을 추진했다. 즉 「북조선 임시위원회 20개조 정강」,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자 법령」,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등을 제정하여, 여성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였다. 1947년 6월 13일 인민보건국 명령 5호 ‘탁아소규칙’, 1958년 7월 19일 내각결정 84호 “인민경제 각부분에 녀성들을 더욱 인입시킬데 대하여”와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와 같은 일련의 남녀평등에 관련한 법령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여성들은 투쟁 없이 법적 제도적 남녀평등권을 획득하였다.⁹⁾ 특히 1946년 7월 30일자로 발표

9) 김일성,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 (1971년 10월 7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 저작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된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에서는 남녀평등권, 선거권, 동일임금, 자유이혼소송권, 처첩금지, 공사창 금지, 재산 및 토지상속권, 이혼시 재산분할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¹⁰⁾ 북한 여성은 전후 복구시기에 여성들의 노동력 동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적 평등사상에 기초한 법률적 규정이 제시되어 지위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1950년대 말까지 북한여성들은 사회주의를 건설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어 졌고, 이 시기에 제시된 여성상은 능동적으로 사회적 생산에 참여하는 혁명적 인간이었다.¹¹⁾

그러나 전후복구가 마무리되고 놀랄만한 경제적 성과를 토대로 하여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가 완료되는 1960대 시기 여성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흐름을 보인다.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의 공업화를 위해 ‘녀성’을 계속 생산현장에 동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다.¹²⁾ 1961년 말 개최된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김일성은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라는 제하의 연설을 통해 여성들에게 후대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육성하는 임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³⁾ 따라서 이 시기에 북한여성들은 사회주의 혁명의 기수이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이중적 여성관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여성관은 1970년대에 다시 한번 변화한다. 1970년대 이후는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주체사상으로 전환되는 시기로서, 김일성이 독재를 확립한 이후 김정일의 세습체제를 시도했던 시기였다. 김일성 유일 우상화와 맞물려 가장 이상적인 여성으로 강반석과

pp. 377-402.

- 10) 김일성,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김일성 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327-328.
- 11) 이러한 능동적인 여성상이 다소 과장되게 인식된 결과 1959년 안강망어업과 저인망어업에까지 ‘녀성호’선단이 조직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여성 착압수, 여성 트랙터 운전수, 여성 선반공 등 중노동 현장에까지 여성이 투입되었다.
- 12) 김영수, “북한의 계급정책과 ‘녀성,’” 『통일논총』 11 (숙명여자대학교, 1994.12), p. 40.
- 13) 전국의 여맹간부와 모범어머니 2,100여명이 참석한 이 어머니대회에서 이후 여맹은 어머니학교를 전국에 설치하였다. 김일성,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 『김일성 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326-353.

김정숙이 제시되었으며, 여성들에게 이들은 본반도록 촉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당시 여맹에서는 강반석 따라 배우기, 어머니학교, 어린이 보육교양사업, 원호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¹⁴⁾ 이러한 분야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가정적, 보조적 사업으로써, 여성의 능동적 역사추진 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즉, 북한정권의 건설 초기에는 투쟁적, 능동적, 사회적 혁명가로서의 여성을 지향했으나 김일성의 권력강화와 더불어 수동적, 가정적, 보조적 어머니로서의 여성상을 강조하는 변화를 보인다. 또한 1978년에 제정된 '사회주의 노동법'을 통해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제적 남녀평등이 실제적으로 현실 생활에서 구현되지 못하였다.

탈냉전기에 접어든 1990년 북한은 산발적으로 존재한 가족관련 규정을 「가족법」으로 제정(90.10.24)하여 공포하였다. 1990년 「가족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통적 가족제도의 유산을 대거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⁵⁾ 「가족법」 제6조는 어린이 양육과 교양을 어머니의 우선적 역할로 제시함으로써 모성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전여성의 노동계급화라는 사회주의 가족원리에 위배되는 반사회주의적이고 반여성해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⁶⁾ 또한 친족부양의 범위를 부모자식은 물론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제35-36조)함으로써 경로효친적 유교사상을 부활시키고 있다. 이는 가족부양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가정을 통해 사회복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추측된다.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여성의 권리신장이나 해방과는 무관한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구조 하의 여성상을 부활시키는 듯 보인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북한여성에게 사적인 영역에서만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까지 '여성성'을 가진 여성상을 요구함으로써 여성들의 역할을 더욱더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서 제시되는 여성상은 사회주의 국가 건

14)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서울: 한울, 1991), pp. 138-140.

15) 전상인,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64.

16) 조형, "북한 사회체제와 가부장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주최 통일문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2.11.30), p. 20.

설 과정에 따라 변화해 왔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남녀평등정책으로 여성을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하였으며 평등한 법령을 규정 한 후 법령의 뒤에 숨어있는 차별의 가능성을 활용하여 여성노동력을 착취하였다. 부자세습체제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가부장적 질서가 강조되었고 그에 따라 여성에게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북한 여성들은 강화되는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가정에서의 역할과 사회적 노동을 동시에 요구받는 이중적 부담을 지고 있다. 북한 여성들은 표면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제도적 평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교육은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남녀 차별적 사회진출과 연결되어 남녀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Ⅲ. 북한 여성의 학교교육

1. 학교교육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가 발표된 1977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이 결부되면서 주체사상교육을 통한 김일성주의를 확립하였다. '사회주의 교육테제'에서 제시한 교육목표는 모든 인민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데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정책노선으로서 첫째, 교육에서의 당성과 노동계급성의 구현, 둘째, 교육에서의 주체의 확립, 셋째,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그리고 국가의 교육사업에 대한 조직진행의 책임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교육목적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공산주의적 새인간' 혹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형성에 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의미를 김일성은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에서 첫째, 공산주의는 놀고먹는 사회가 아니므로 노동을 사랑하고 즐기며 이에 자각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둘째, 개인주의·낡은 사상·자본주의 사상은 철저히 뿌리뽑고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된 사람, 셋째, 자기 개인의 리익을 돌보지 않고 오직 전체사회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 넷째, 공산주의의 승리를 확신하고 어떠한 역경에서도 혁명적 낙관주의를 갖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¹⁷⁾

이러한 기본적인 이념을 담고있는 교과서에서 보여지는 여성상은 북한 여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 요구하는 지향점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속에서 살펴보는 여성상은 북한 여성의 현실이기보다는 이념형적 형상의 여성상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여성상이 교과서 내용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북한여성에게 요구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2.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상 사례분석

북한의 학교 내 교육에 관련된 연구자료가 부족하여 선행 연구물들이나 이차문헌보다는 북한에서 최근에 출간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여성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간 배정에서 비중이 큰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국어」 교과서와 사상교양서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활동」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¹⁸⁾

서술방법에 있어서도 연구자의 평가나 해설을 중시하는 해석적인 방법보다는 예문을 풍부히 제시하고 그 속에서 일관되게 보여지는 여성상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여성에 관해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매우 드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욱 여성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희박해진다. 저학년 교과서에서 간간히 등장하던 여성 관련 내용이 학년이 높아

17)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7), p. 27.

18) 북한의 인민학교 교과과정에서 「국어」 과목이 차지하고 있는 시간 수는 31.7%에 이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책 참조. 김동규, 『북한학총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9), p. 261.

질 수록 김일성 김정일의 사상과 공산주의 혁명건설에 대한 내용에 묻혀 버리기 때문이다. 그나마 여성에 관련된 글은 강반석과 김정숙에 대한 내용뿐인데 그 등장 횟수도 매우 적으며, 그 내용 또한 여성과 관련된 정보를 유추하기 어렵다.

1) 여성성 강조

여성을 꽃에 비유하거나 꽃과 동일시하는 내용이 많이 발견된다. ‘꽃’ 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은 아름답고, 상냥하고, 착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여성을 꽃에 비유하기도 하는 직접, 간접적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예외는 아니다. 북한 교과서에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매우 적는데 <사례 1>과 <사례 2>에서처럼 꽃밭을 돌보는 예문에는 반드시 여성이 주인공으로 하여 등장한다. 이는 여성이 꽃밭을 돌보듯이 주변을 돌보고 어른을 공경하며 착해야 여성답다는 고정적 성역할을 표현이다.

<사 례 1>

꽃니는 인사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꽃니는 선생님이나 웃사람을 만나면 깎듯이 인사를 합니다.¹⁹⁾

<사 례 2>

꽃밭에 다달은 선희의 동그스름한 얼굴에는 방긋이 웃음이 피어오릅니다...파릇파릇 새싹이 움트는 이른봄에 가졌던 분단모임이며 집집의 좋은 꽃들을 저마다 골라 오던 일.....그리고 띄약벌이 내려쬐 일때면 종이 고깔을 해 씌우고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세차면 꼭꼭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던 일....²⁰⁾

19) “꽃니의 인사,” 인민학교 2학년 『국어』 제2과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 p. 30.

20) 『국어』 인민학교 4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 pp. 41~42.

또한 교과서에서 여성이 반드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예문은 바로 집안 가사일과 관련된 내용이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옷을 다리는 것은 모두 여성의 역할로서 표현되어 있다. <사례 5>에서 보여지듯이 여성의 역할은 어린 여자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성은 연령에 상관없이 살림을 하고 형제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숙이의 모습에서 북한이 여학생 교육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엿볼 수 있다.

<사 례 3>

이윽고 부엌에서 식사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공부하던 누나가 일어나 밥상을 조용히 갖다 놓고는 말끔히 행주를 쳤습니다. 그리고 수저들과 음식 그릇들을 받아 차근차근 상에 놓았습니다.……그리고 어머니를 도와 누나와 함께 밥상과 방안을 깨끗이 거두었습니다. 이어 정남이는 옷차림과 몸 단장을 하고 책가방을 들었습니다.²¹⁾

<사 례 4>

옷을 다 다리고 동생의 바지를 다릴 때에는 다리미에서 전기를 뿜다. 나는 동생에게 다리미가 아직 달았으니 바지를 얼마든지 다릴 수 있다고 타이르고는 바지주름을 칼날같이 세워주었다…저녁상을 다 차리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돌아오셨는데도 불은 그냥 켜 있었다. 나는 밥을 먹다 말고 부엌에 나가 불을 껐다.²²⁾

<사 례 5>

아버지원수님께서 머리 숙인 저의 손을 꼭 잡으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고 물으시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때 미제놈들의 폭격에 희생되고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어요…<네가 영숙이구나…동생들 데리고 살림을 하면서 학교

21) “밥 먹을 때에도” 인민학교 3학년 『공산주의도덕』.

22) “금옥이의 전기절약수첩,” 인민학교 4학년 『공산주의 도덕』.

에 다니느라고...힘들었지?!...이거 손이 좀 텃구나....²³⁾

2) 강반석 여사 따라 배우기

북한의 교과서에는 여성상과 여성역할의 표본으로 강반석 여사가 제시되고 있다. 여성들의 전형인 '강반석·김정숙 여사'는 '시부모를 공경하는 며느리, 혁명을 내조하는 헌신적인 아내, 자녀양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혁명가의 어머니, 이웃과 화목한 여성'으로 그려졌다. 사회적으로는 혁명의 주체이나, 사적으로는 혁명의 주요 조력자로 그려진다. 또한 사회에서 요구되는 혁명적 주체의 성격 또한 가정에서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여성은 가정에서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아내로서 내조의 기본내용은 가정생활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여성들은 강반석, 김정숙의 모범을 본받아 사회와 가정에서 헌신적으로 그 '현모양처'의 역할을 다할 것을 교육받는다.²⁴⁾

〈사 례 6〉

어느 해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어머님께서는 나무가지를 치마 자락에 꼭싸서 꺾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앓고 계신다니 아마 손이 아파서 그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할아버지는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할아버지를 보시자...할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서시며 나직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성주가 저녁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기에 찾아나왔더니 저렇게 찬 온돌방에서 정신없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조용히 불을 때주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어머니께서 왜 나무가지를 치마자락에 싸서 꺾으시였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반석 어머님은 정말 훌륭하신 어머님이시구나!) 할아버지는 강반석 어머님을 우러르며 오래오래 서 있었습니다.²⁵⁾

23) 인민학교 4학년 『국어』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 pp. 106-107.

24) 박현선, "현대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9. p. 101.

〈사례 7〉

…어머니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였으며 수령님을 옹호 보위하는데서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시였다. 그리고 소년 선봉대 사업과 공청 사업, 아동단지도사업과 적구공장 등 어려운 혁명임무를 수령님의 의도대로 수행하시였다.²⁶⁾

〈사례 8〉

열렬한 혁명투사 강반석어머님이시였습니다.……쌍가매의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도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웃으시는 눈길로 쌍가매를 어루만져 주시며 흰 보자기를 펼치시였습니다. 보자기에는 어머님의 정성이 깃든 솜옷 한 벌과 고운 버선 그리고 자그마한 여자 고무신이 놓여 있었습니다.……우리 귀한 아들딸들을 참되게 길러서 나라에 바치자고 그제 조선 사람된 도리고 어머니된 도리라네.²⁷⁾

〈사례 9〉

지하공작 바쁘신 그 길에서도
바구니에 산나물 채워주시더니
이 밤에 피곤도 다 잊으시고
가난한 집 아이들 그네 태워주시네
……중략.²⁸⁾

3) 전통적 어머니상 강조

북한의 교과서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여성상은 아마도 전통적 어머니

25) “어머님의 정성,” 인민학교 2학년 『국어』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 제 18과, p. 44

26) “위대한 원수님께서 탄생--혁명적 가정,”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혁명활동』 (고등중학교 4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 p. 5.

27) 『국어』 고등중학교 3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 pp. 56~59.

28) 『국어』 고등중학교 1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1), pp. 131-132.

상이 아닐까 싶다. 여성은 아이들과 주변사람들을 자식처럼 돌보고, 공산주의적 혁명가로 키우는 어머니 역할을 나이와 장소에 상관없이 요구받고 있다. 이와 같은 교과서 내용은 다음 예문에 잘 드러난다.

〈사례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의 사랑속에서 금순이가 마촌아동단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날 마촌아동단에 아동국장이 찾아왔습니다. 《애들아, 우리들은 장군님의 사랑을 받기만하고 보답하지 못하고 있구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아동국장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금순이가 냉큼 일어났습니다. 《좋은 옷을 해드리자요. 장군님께서는 글썄 추운 겨울에도 홑옷을 입고 계신다지 않아요》 아동국장은 빙그레 웃으며 아동단원들에게 물었습니다....²⁹⁾

〈사례 11〉

영순이는 맑은 물을 떠다 교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마루를 닦아나가던 영순이는 문득 일손을 멈추었습니다. 단추 한 알이 책상 밑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의 단추일가)...영순이는 그 동무를 찾아 단추를 꼭 달아주리라 마음 먹었습니다...영순이는 동무들의 옷차림을 한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들어서는 정남이의 옷에 단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영순이는 바늘과 실을 가져다 정남이의 옷에 단추를 단단히 달아주었습니다.³⁰⁾

〈사례 12〉

우리 마을에 영예군인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전쟁 때 미군놈들과 용감히 싸우다 부상을 당해 영예군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참 좋은 분입니다. 마을에서 누가 앓으면 꼭 찾아가 돌봐줍니다.

29) “금순이의 마음,” 인민학교 2학년 『국어』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 제31과, p. 77.

30) “단추,” 인민학교 2학년 『국어』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 제43과, p. 108.

또 우리들이 놀다가 옷을 더럽히면 깨끗이 빨아줍니다. 그래서 모두들 <우리 할머니>라고 부릅니다.³¹⁾

<사례 13>

동무들의 잠자리를 보아주고 사령부로 간 금순누나...<소년중대원들이 어떤 애들이요? 우리는 지금 그 애들이 부모들을 대신해서 돌봐 주고 있소...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그들이 하자는 대로 놔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혁명가로,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자라도록 가르치며 아끼는데 있소.>³²⁾

위의 사례에서 김일성 수령님의 옷을 걱정하여 옷을 지어주자는 금순이, 교실에 떨어진 단추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임자를 찾아 달아주는 세심한 영순이, 자신의 몸이 불편한데도 이웃을 돌보는 영예군인 할머니, 집단생활에서 소년단원들을 자식처럼 돌봐주는 금순누나의 모습에서 여성의 어머니상이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어머니의 역할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전 여성에게 확대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3. 교과서에서 제시된 여성상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북한의 교육과정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업 주 수는 감소하고 대신에 실습, 노동, 조직활동에 투입되는 수업 시간이 점차 증가한다.³³⁾ 실습 과목 중에서 여성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녀학생실습'이다.³⁴⁾ 이 '녀학생실습'은 고등중학교 6년 동안 총 185시간(2.9%)이라는 적지않은 시간이 할애되어 있다.³⁵⁾ 북한의 '녀학생실습'에서 교육하는 내용은 다음

31) "우리할머니," 인민학교 2학년 『국어』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 제70과, p. 170.

32) 고등중학교 1학년 『국어』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1), pp. 8~9.

33) 최영표, "북한 중등교육 체제의 분석", 『북한의 교육의 이론과 실제』, 통일교육학회, 1999. 10. p. 57.

34) 남학생의 경우는 '공작실습'을 교육받는다.

35) 김동규, 『북한학총론』, 교육과학사, 1999. p. 261

예문에 잘 드러난다.

〈사 례 14〉

우리 위연여자고등학교 녀학생실습실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갖가지 수놓이, 뜨개, 재봉 실습품들이 들어있는 진렬장 안을 들여다보며 그것들을 만들어낸 학생들의 훌륭한 솜씨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 학교녀학생실습 소조원들의 집체작으로 된 우아하고 아름다운 화폭의 수예품들이 또한 눈길을 끈다. 우리 학교 녀학생실습교육의 자랑스러운 열매는 또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학생들의 올바른 레의도덕과 단정한 옷차림, 온 학교안에 차넘치는 알뜰하고 문화적인 생활기풍의 이모저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녀학생실습과목 교육의 거대한 생활력이 활짝 꽃피가고 있는 우리 학교의 훌륭한 교육현실을 놓고 볼 때마다 녀학생들을 주체시대의 문명하나 녀성혁명가로 키우는데서 이 학과목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가에 대하여 다시금 느끼게 되며 항상 녀학생실습과목을 담당하나 교원으로서의 높은 책임감이 앞서군한다.³⁶⁾

위의 〈사례 14〉는 북한의 여학생 실습 교사의 소감을 담고 있는 북한의 신문기사내용이다. 이 내용을 통해 북한의 여학생 실습이 과거 남한에서 행해졌던 「가사」나 「가정」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³⁷⁾ 이 교과 과정은 앞서 교과서에서 여성을 반드시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며 강조하였던 여성상인 현모양처형, 전통적 어머니형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학생들에게 바느질과 뜨개질, 수놓기 등을 가르친다. 이는 집안 일에 대한 여성의 성역할이 학교에서 학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³⁸⁾ 북한이 사회주의

36) 교원신문사, (1979), p. 252; 『북한여성의 실태』, 정책자료 90-4, 정무장관(제2)실, p. 158에서 재인용.

37) '남한에서는 1995년 1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가정』과 『기술·산업』 과목이 남녀 공통과목으로 적용되고 있다.' 김귀옥 외,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동, 1997, p. 204.

혁명 완수를 위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탁아소나 밥공장 등으로 여성의 집안 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혁신적인 정책을 취하였지만 결국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바느질과 뜨개질과 같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학습시킴으로서 가정에서의 일이 여전히 여성만의 일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예이다.

IV. 북한 여성의 사회교육

1. 사회교육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사회주의 교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일생동안 교육하는 전면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이어야 함을 명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연령, 남녀, 직업에 따라 각종 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 받고있다. 여성 역시 사회교육에의 참여는 의무적이다. 북한 사회교육의 목적은 첫째, 주체사상을 교육하는 정치이념 강화와 둘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을 촉진하고 일반적 교양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³⁹⁾ 김일성의 교육원리에 입각한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 인간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교육은 일단 정치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김일성의 주체사상, 당정책, 김일성교시 등에 대한 학습이 대부분이다.⁴⁰⁾

북한의 성인을 위한 사회교육은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공고히 발전시키고 그들의 일반지식 수준과 기술 및 문화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오늘날 북한사회의 교육체계는 노동자, 농민

38) 김귀옥 외, “북한에서도 성 역할의 차이가 구조화되어 있고, 이는 또한 여자 어린이를 재사회화하는 하나의 교육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동, 1997, p. 189.

39) 박미란, “북한의 여성정책에 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p. 74.

40) 최운실, “북한의 청소년의 과의활동과 사회교육” 『북한』, (서울: 1990), pp. 47-49.

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전체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병행적 교육체제로 발전되어, 그 유형은 근로자 고등중학교와 공장 고등전문학교, 공장대학, 통신 및 야간 교육망, 간부들과 근로자를 위한 정규 학습 체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성인들은 직업동맹이나 여성동맹 등의 각종 모임과 조직에 편성되어 사상교육 강화를 위한 사회교육을 받고 있다.⁴¹⁾ 즉, 북한의 사회단체는 정치학습과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간주된다.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유일한 여성단체인 '조선민주여성동맹'(이하 여맹)이다. 여맹은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창립되어 1951년 1월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된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만 31세부터 55세까지의 전업주부(가두녀성)를 가맹 대상으로 하며, 현재 박순희가 여맹위원장을 맡고 있다.⁴²⁾ 여맹은 연중 상하반기 각각 1회정도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당면한 현안을 토의하고 각 지부별로 실천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98년 10월말 추산된 여맹원수는 약 2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여맹은 그 성격이 단순한 문화계몽을 위한 여성단체가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 여성들의 특성에 맞는 사상교양 사업의 강화에 치중하는 정치적 단체이다. 여맹의 중요한 기능은 정치학습을 통하여 사회주의 교양사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여성들을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정권으로부터 일반여성으로까지의 하부전달식 과정에 있어서 여맹이 하나의 중요한 수단·방법이었음을 의미한다.

「조선녀성」은 여맹의 기관지로써 1년 6회 발간되는 여성잡지이다. 여맹의 정치단체로서의 성격 때문에 그 기관지인 「조선녀성」 또한 여성을 상대로 한 정치교육지, 계몽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조선녀성」은 북한 내에서 여성들만을 위해 공식적으로 발생하는 유일한 잡지이고, 각 직장이나 여맹에서 여성들에 대한 교육용으로 활용되는 매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잡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여성들에게 북한사회가 요구하는 여성

41) 조정환, "북한교육의 체제적 성격", 『통일논총』,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87)

42) 여맹위원장은 2000년 10월 3일 중앙위 제5기 34차 전원회의에서 천연옥을 해임하고 박순희를 새로 임명했다. 여맹위원장은 1971년 이래 김일성 주석 후처 김성애가 맡아 오다 98년 4월 이후 2년 6개월 동안 천연옥이 맡아왔다.

상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조선녀성」에 나타난 여성상 사례분석

1) '여성성(性)' 강조

「조선녀성」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의 성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여성을 '여성성'에 적합하다고 규정짓는 일부의 영역에 배치함으로써 어머니로서의 모성애, 딸로서의 효심, 여성으로서의 미 등의 역할만을 기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유교적 문화권의 전통적인 여성상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자주 등장한다.

〈사례 15〉

무산의 세자매인 강정숙, 강인숙, 강삼숙 녀성들, 생김새도 성격도 어슷비슷한 이 세자매들은 부모없는 아이들 101명을 훌륭하게 키우고 있는 공산주의적 소행의 주인공들이다.⁴³⁾

〈사례 16〉

원산과 함흥, 사리원과 강계 등에서 자식이 없는 늙은이들을 데려다 자기 친부모를 모시는 친딸의 심정으로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다.⁴⁴⁾

〈사례 17〉

정서가 풍부한 조선녀성들의 우수성은 감정이 많은데서 표현된다. 조선녀성들은 흔히 감정을 눈물에 담아 표현한다 ... 녀성이 꽃이라면 웃음은 그 꽃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며...⁴⁵⁾
또한 다음 사례에서는 북한 여성들이 사회영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알

43) “세 자매 대표” 『조선녀성』 (1999년 제1호), p. 34.

44) “친딸이 되어” 『조선녀성』 (1999년 제2호), p. 30.

45) 강은옥, “정서가 풍부한 조선녀성들”, 『조선녀성』 (1999년 제5호), p. 35.

수 있다. 여성들은 간호업무라든가 남성으로 상징되는 군인들을 옆에서 돕는 일, 음식접대와 같은 후방사업, 바느질이나 꽃밭조성 등의 보조적인 노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여성들은 남성들의 보조자적, 후원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을 여성의 역할로 당연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18〉

이곳 녀맹원들이기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인민군대원호사업과 로병, 영예군인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는 일에서도 훌륭한 모범을 보여... 녀맹원들은... 통군정주변에 해마다 여러 가지 꽃나무도 심고 꽃밭도 조성하였다.46)

〈사례 19〉

한편 녀맹원들은 건설자들의 힘을내여 일하도록 후방사업도 계획적으로 벌리였다 ... 떡이며 빵, 국수를 건설자들에게 대접하며 공사에 일을 앞당겨달라고 고무하는 녀맹원들, 혼자서 몇백켤레의 장갑이며 어깨받치개를 마련해 건설자들에게 지원한 녀맹원....47)

2) '김정숙형 안해' 따라 배우기

「조선녀성」에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따라 배우자”라는 소제목으로 매호마다 김정숙에 대한 일화를 실고 있다. 주목할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과서」에서는 “강반석 따라배우기”에 대한 내용이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반면, 「조선녀성」에는 김정숙이 등장한다. 이는 「조선녀성」의 구독대상 연령이 일화 속의 김정숙 연령과 어느 정도 일치하여 북한여성과 김정숙이 공유하는 관심 영역과 행동을 제시할 때 공감

46) 김희백, 『조선녀성』, “충효의 꽃, 미풍의 꽃 활짝 피우며”, (평양: 평양출판부, 1999년 제2호), p. 24.

47) 김명규, 『조선녀성』, “발전조건제를 떠받든 충성의 고임들”, (평양: 평양출판부, 1999년 제5호), p. 26-27.

을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⁴⁸⁾ 그렇다면 ‘김정숙 따라배우기’에서 북한여성들이 따라 배울 것은 무엇인가? 다음 예문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사례 20〉

“김정숙동무는 나에게 대한 충실성이 매우 지극한 동무였습니다”

김정숙 동지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부터 빛나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불굴의 혁명정신과 숭고한 자각,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 안전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시였으며 끝없는 충정과 지극한 정성으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보장해드리신 호위장군, 친위전사, 참다운 충신이었습니다.⁴⁹⁾

〈사례 21〉

“어머니는 혁명가들의 시중을 들면서 자신도 혁명을 하였다”

어머님은 위대한 혁명가의 안해로만이 아니라 가장 믿음직한 혁명동지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이 혁명활동을 끝없는 헌신성과 지성을 다해 도우시였으며...⁵⁰⁾

〈사례 22〉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 명령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 실현을 위하여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로 온갖 반혁명과 투쟁에서 언제나 기수가 되

48) 윤미량씨는 저서에서 “80년대의 중반부터는 강반석보다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을 따라 배우자는 운동이 더 활발하다는 차이만 있다. 1980년대 『조선녀성』에는 강반석의 업적은 단편적으로만 보도되고, 김정숙이 매회 영원한 귀감으로 회상되고 있다.”고 저술하였으나, 저자의 생각으로는 이는 시기적인 변화이기 보다는 교과서와 『조선녀성』의 성격 차이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교과서에는 1990년대 이후에도 김정숙보다는 강반석에 대한 일화를 더 많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미량, 앞의 책, 1991, p. 140

49) 안봉근, “김정숙형의 인간” 『조선녀성』 (1999년 제1호), pp. 18-19.

50) “헌신과 지성으로 빛나는 한생” 『조선녀성』 (1999년 제2호), p. 23.

시였다. 51)

위의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김정숙을 표본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숙에 대한 기사 내용은 주로 김일성의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김정일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수령인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모부인 김형직에 대해서도 헌신과 정성을 다했음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녀성」을 읽는 북한 여성들은 김정숙 일화를 통하여 뒤에서 남편을 보위하는 아내로서의 역할과 부모를 정성껏 모시는 며느리의 역할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3) 전통적인 어머니상 강조

「조선녀성」에서도 「교과서」에서와 같이 특히 어머니의 모범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은 생리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역사적, 사회적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성에게 어머니성(性)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선녀성」에는 모성을 부각시키고 있다.⁵²⁾ 「조선녀성」에서 어머니성을 강조하는 사례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례 23〉

국가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장려하고 아이 많은 녀성들은 영웅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⁵³⁾

〈사례 24〉

김정일동지께서는 개성시 장풍군 덕적리에 살고 있는 김정희녀성이 세쌍둥이를 낳고 사경에 처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 치료대

51) “불세출의 녀장군” 『조선녀성』 (1999년 제5호), p. 20.

52)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모성의 강조는 김귀옥,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서울: 대동, 1997), p. 9; 이배용 외, 위의 글. p. 95 참조.

53) “모성영웅에 대한 생각” 『조선녀성』 (1999년 제1호), p. 31.

책을 제때에 세워주시었으며 ... 이 세쌍둥이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은 날이갈수록 더해만갔다.⁵⁴⁾

〈사례 25〉

어머니라고 하여 자신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쉽게 부르지 말라, 이 땅 천만 어머니들의 참된 삶을 지켜주고 보살펴주시고 빛내어 주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어머니가 되기전에는....⁵⁵⁾

〈사례 26〉

저도 생각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올바른 교양과 모범이 얼마나 중요할지를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습니다.⁵⁶⁾

〈사례 27〉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무겁고도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 우리 어머니들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특성과 위생지식을 잘알고 어린이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전한....⁵⁷⁾

위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사의 한 부분은 아예 어린아이를 키우는 법을 기사로 매호 지정해서 실고 있으며, 출산 장려 정책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들의 교양 및 상식의 습득은 어린이를 교양하고, 보육하기 위한 과학적 상식의 습득인 것이다. “특히 어머니들이 선진적인 아동교양 및 보육상식과 과학적인 가정관리 상식을 습득하도록 하여야”한다고 강조한다.⁵⁸⁾ ‘어머니학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녀양육과 관련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기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여성의

54) “삼태자-세 초병의 어머니” 『조선녀성』 (1999년 제2호), p. 29.

55) 로만호, “어머니” 『조선녀성』 (1999년 제1호), p. 33.

56) 김명희, “공중도덕과 어머니” 『조선녀성』 (1999년 제4호), p. 31.

57) “어린이 생리적특성과 생활” 『조선녀성』 (1999년 제5호), p. 40.

58) 『전국어머니대회 문헌집』, (평양: 평양출판부, 1962)

사회적 상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조선여성』에 나타난 북한 여성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성상’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대부분 ‘남성성’과 대별되어 표현되는 ‘여성성’ 논의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남녀평등적인 법과 제도를 제정하여, 여성의 법적지위와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였다.⁵⁹⁾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북한이 편파적 ‘여성성’ 역할의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담아낸 것이었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는 출발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성’에서 벗어난 남녀 평등적인 법과 제도는 문서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여성상은 다음의 사례에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사례 28〉

녀성은 가정의 주부이며 온 가정에 건전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차 넘치게 하는 꽃이다. 늙은 부모들이 여생을 값있게 보내도록 잘 돌봐주는 것도 녀성들이며 남편이 혁명사업을 잘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받들어주는 것도 안헤이며 혁명동지인 녀성들이다. 아들딸들을 낳아 키우는 것도 녀성들이며 그들을 혁명위업의 미더운 계승자로 준비시키는 첫째가는 교양자도 녀성들이다.⁶⁰⁾

위 예문은 부모의 남은 여생을 모시는 딸로서, 남편의 후원자·보조자인 아내로서, 자녀교육을 담당하는 어머니로서의 여성만이 제시되어 있다. 결국 북한에서 가장 바람직한 여성의 삶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의 삶이 가장 큰 행복이며 꿈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일터에서조차 남성 일군의 보조자·후원자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여성은 사적인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공적인 사회에서까지 ‘여성성’에 한정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어머니상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북한사회에 남아있는

59) 박미란, “북한의 여성정책에 대한 분석적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pp. 77-78.

60) 박영숙, “가정의 혁명화와 녀성들의 책임” 『조선여성』 (1999년 제3호), p. 15.

가부장적 전통에 기인한다. 북한사회에서 일반여성에 대한 여성성이 요구되고 있다든가 특히 어머니에게 강조되는 모성 등은 북한사회에 흐르고 있는 가부장적 전통의 요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⁶¹⁾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 원리에 입각하여 전통가족 내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실천하도록 독려하며 특히 모성을 숭고한 사명이자 매우 영예로운 일로 강조한다. 이러한 대가정의 원리를 전체사회로 확대하여 자식을 돌보아 주는 어버이로서의 수령, 어머니로서의 당, 자식으로서의 인민이 사회정치적 혈연관계에 의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다는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발전시켰다. 다음의 사례는 '사회주의 대가정' 이론이 어머니들의 전통적인 역할을 어떻게 강조하는지 잘 보여준다.

〈사례 29〉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 품을 귀중히 여기고 있기에 그 품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하며 그 품속에 안기면 행복해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당에 대하여 인민들은 어머니 당이라고 부르며 따르고 있는데…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어머니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 하루 생활을 놓고도 밥을 제대로 먹는가, 잠을 제대로 자는가, 밖에 나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하고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며 오만가지 시름 속에서 자식들을 키운다고 하시였습니다.⁶²⁾

이러한 여성상의 교육은 조선시대 강조했던 여성 덕목과 매우 유사하다. 유교 전통 속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던 역할을 살펴보면 '딸로서는 효를, 며느리로서는 집안의 화목을 도모하고, 아내로서는 남편에 대한 순종을, 어머니로서는 자녀 교육을 주요한 임무로 하고 있으며, 여성들에게 전면에서 나서기보다는 보좌역을 담당하여 그들에서 순종과 희생으로 가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사를 관장하기 위해서 가

61) 박현선, "여성과 통일", 『여성과 한국사』,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3), p. 462.

6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활동』, 고등중학교 4학년, 교육도서출판사, 1995. pp. 6~7.

사기술과 근검절약의 생활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꼽히고 있다.⁶³⁾

이렇게 볼 때 북한 사회에서의 여성은 이념적·제도적 측면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듯 보이나 가정에서의 가부장제 문화전통이 여전히 온전해 있으며 남존여비의식과 현모양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 심한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있다.⁶⁴⁾ 결국 북한 여성은 가부장제문화의 전통적 역할과 고정관념의 성역할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녀성」은 북한여성들의 유일한 여성 사회교육 잡지임을 자처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등의 혁명일화를 통한 정치학습과, 자녀교육, 모범적인 여성들의 사례 소개, 요리 등에 관한 것뿐이다. 과학교양 관련 기사 역시 자녀를 돌볼 때 필요한 지식만 실려 있을 뿐이며, 사회과학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북한 여성의 사회교육지임을 자처하는 「조선녀성」이 위에서 살펴본 내용만을 강조하는 한 여성의 성역할은 재생산 될 수밖에 없다.

3. 「조선녀성」에 나타난 '여성상'의 제시와 학습방법

1) 「조선녀성」에 나타난 여성상의 제시방법

앞서 살펴본 「조선녀성」에 나타난 여성상이 북한여성들에게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공감을 얻고 이를 따르게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하는 여성상을 실현한 여성에게 상을 수여하는 것이다. 북한에는 많은 포상제도가 있다. 「조선녀성」에 나타나 있는 포상제도의 형태는 대회를 통하여 상을 주거나, 제도화하거나, 혹은 「칭호」를 주는 것 등이 있다. 이 같은 포상제도를 통해 모범을 창출하여 모두가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여성상을 전 사회적으로 장려한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녀성」에서 쉽게 찾아 볼

63) 유교문화의 전통적 여성상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 이배용 외, 『유교문화의 전통과 변형속의 여성』,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편], 1995). p. 19.

64) 광분이, “가부장제 문화와 남북한 여성문제,” 『우리문화동질성연구회』 제1집 (1997. 12), pp. 172-173.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순옥동무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내여 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65)

그는 3차에 걸치는 김정일화전시회에 참가하여 특등과 1등의 높은 평가를 받았고 올해 4월에 진행된 제1차 김일성화전시회에서 좋은 평가와 표창을 받았다. 경애하는 박문월동무를 숨은 공로자로 내세워주시고 전국영웅대회, 전국공사주의미풍선구자대회, 제2차 전국 어머니대회 등 여러 대회에 불려지시고... 국가훈장 제1급, 로력훈장을 비롯한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시었다. 66)

둘째, 북한이 추구하는 여성상을 담고 있는 김정숙의 일화 게재하여 북한 여성들이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에서 「조선녀성」은 매호마다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따라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온 김일성 가계의 이상화 작업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녀성」에서 강반석이 아니라 김정숙이 등장하는 이유는 「조선녀성」의 구독대상의 연령층이 일화 속에서의 김정숙의 연령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67)

셋째, 일반 여성들의 모범사례를 찾아내어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모범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숨은 영웅 찾기'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예컨대, "박옥련동무도 오늘의 숨은영웅, 숨은 공로자 대오에 서있는 우리당이 바라는 그런 녀성일군이 아니겠는가" 68)라고 표현한다든가, "이 나날에 제일먼저 충성의 2중모범초급단체의 영예를 지니고 원군사업에서도 앞장선 3초급단체

65) "육탄영웅 조순옥," 『조선녀성』 (1999년 제3호), p. 28.

66) "실천으로 대답해야 한다," 『조선녀성』 (1999년 제4호), pp. 34-35

67) "김정숙우상화"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1999년 제1호 "결사옹위의 위대한 영웅", "김정숙형의 인간", 1999년 제2호 "결사관철의 숭고한 품모", 1999년 제3호 "대홍단의 메아리", 1999년 제4호 "백학산의 새 전설", 1999년 제5호 "불세출의 여장군".

68) "김정숙형의 인간," 『조선녀성』 (1999년 제1호), p. 18

녀맹원들은 김기숙동무의 모범을 따라 학습에서도 남다른 열성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⁶⁹⁾라는 식으로 숨은 영웅을 찾아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알려지지 않은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드러나지 않는 곳곳에서의 노력과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한다.

2) 「조선여성」에 나타난 학습방법

a. 문헌학습⁷⁰⁾

북한은 어려서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문헌을 통한 학습을 해왔다. 「조선여성」에서도 많은 문헌들이 소개되며 이를 통한 학습 실행 방법이 가장 모범으로 제시된다. 특히 최근 들어 여성들의 책임기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김기숙 동무는 ...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더 높여갈 때만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모든일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책임의 일을 계획적으로 꾸준히 진행하기 시작하였다.⁷¹⁾

그는 처음해보는 일이었지만 마을 늙은이들에게서 경험도 듣고 기술서적도 보면서 관리방법을 하나하나 익히면서 염소를 길렀다.⁷²⁾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고있는 이 좋은 기풍은 자기를 부단히 수양해나가려는 우리 여성들의 고결한 품모이고, 정서를 즐기는 생활 기풍으로 된다.⁷³⁾

69) 리상진, “책임기를 정상화하여,” 『조선여성』 (1999년 제2호), p. 26

70) 황은주씨는 『조선여성』에 나타난 문헌학습 방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김일성, 김정일의 저서 학습이다. 둘째, 혁명역사 및 덕성실기 학습이다. 셋째, 강반석의 혁명적 업적 학습이다. 넷째, 문예서적을 통한 학습이 있다. 황은주. 앞의 글, 1994

71) 리상진, “책임기를 정상화하여,” 『조선여성』 (1999년 제2호), p. 26

72) “모범축산가정,” 『조선여성』 (1999년 제2호), p. 26

우선 우리는 「김일성저작집」,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김정일선집」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로작들을 학습하면서...74)

b. 예술활동을 통한 학습

북한에서는 예술 활동을 통한 선전, 선동도 중요한 사상교육의 한 부분이다. 즉,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전 분야는 북한주민을 정치 사회화시키는 매체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다. 따라서 「조선녀성」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조선녀성」의 구독자가 주로 여맹에 가입한 가두녀성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예술활동 특히 혁명가요보급과 연극, 재담, 노래공연 등을 통해 감동은 주고 교양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또한 「조선녀성」 자체로도 역시 북한 여성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다.75)

지난해 8월에 노래를 통한 계급교양을 통이 크게 벌리기 위해 500여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조직하였습니다.76)

초급단체에서는 또한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생애를 담고 혁명영화들과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등에서 「진달래」, 「설령의 붉은기」에 대한 ...77)

휴식시간에는 흥겨운 춤판을 벌이며 시기를 복돋아주었다. 그리고

73) “언제나 책읽는 기풍을 세워,” 『조선녀성』 (1999년 제4호), p. 12.

74) 황금녀, “계급교양사업을 이렇게 짜고들었다,” 『조선녀성』 (1999년 제4호), p. 29

75) 우리 녀성들은 전문 작가, 기자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벽찬 현실속에서 자신이 체험한 것을 가지고 문학작품을 쓰고 있다. ... 특히 『조선녀성』, 『사회주의 생활문화』, 『인민교원』, 『청년생활』, 『대학생』등 잡지들에 많은 글은 써냄으로써 문필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리경혜, 『여성문제해결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p. 113-114.

76) “예술선동을 통한 계급교양강화,” 『조선녀성』 (1999년 제2호), p. 33

77) 리룡진, “충고한 충성심을 따라 배워,” 『조선녀성』 (1999년 제3호), p. 27

단오명절과 같은 계기들에는 녀맹원들의 음식품평회도 하고 노래와 춤 《경연》도 조직하였다.⁷⁸⁾

조선녀성들은 음악과 함께 무용도 끝없이 사랑하고 즐기었으며 유희와 오락도 매우 즐겨하고 많이 하였다.⁷⁹⁾

c. 모임을 통한 학습

북한은 조직을 통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성인들은 직업동맹이나 여성동맹 등의 각종 모임과 조직에 편성되어 사상교육 강화를 위한 사회교육을 받고 있다.⁸⁰⁾ 모임과 조직은 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여맹 역시 여성 사회조직의 하나이고 여맹의 기관지인 『조선녀성』에서도 조직생활 강조와 모임을 통한 학습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초급단체들에서 학습회, 강연회, 생활총화 등 여러 계기들에 계급교양자료들의 실속있게 활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계급교양과 관련한 명제해설, 강연, 해설담화, 직관선전, 예술영화감상발표모임, 체험자들과의 이야기모임, 복수결의 모임 등 계급교양을 여러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게 하였습니다.⁸¹⁾

도서들에 대한 연구학습과제도 주고 그 대한 실효발표모임도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 벽동군 통평리초급녀맹위원회 1초급단체에서는 녀맹원들 속에서 ... 학습을 실속있게 잘하고 있다.⁸²⁾

동맹원 모두가 깊이 체득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학습을 조직진행하였다.⁸³⁾

78) “내밀성이 강한 일군,” 『조선녀성』 (1999년 제5호), p. 28

79) 강은옥, “정성가 풍부한 조선녀성들,” 『조선녀성』 (1999년 제5호), p. 35

80) 북한연구소(편), 『북한총람』, 1983.

81) 황금녀, “계급교양사업을 이렇게 짜고들었다,” 『조선녀성』 (1999년 제4호), p. 29

82) 리룡진, “충고한 충성심을 따라 배워,” 『조선녀성』 (1999년 제3호), p. 27

83) “효녀의 마음,” 『조선녀성』 (1999년 제5호), p. 27

이와 같이 북한 여성상은 학습과 강연, 생활총화, 실효투쟁 등의 방법을 통해 일반주민들에게 전달된다. 구성원들을 연령과 직업에 따라 여러 조직으로 구분하고 직업과 생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초급단체와 같은 소규모 단위로 학습을 실시하고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학습과 강연,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여성은 여성성과 아내, 어머니로서의 상을 굳혀가고 있다.

V. 결론 및 남북여성교류에의 시사점

이 글에서는 북한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북한이 이상형으로 추구하는 여성상이 무엇인지를 「교과서」와 「조선녀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글의 서론에서 지적하였던 북한 원전자료 접근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2차 연구자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분석이 어려웠지만 북한이 교육을 통해 지향하는 여성상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여성의 삶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북한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교육은 여성성, 즉 여성다움을 강조한다. 꽃을 가꾸는 여성스러운 일에 봉사하고, 어머니 대신 살림을 맡아하며, 그리고 집단생활에서도 소년단원들을 자식처럼 돌보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즉, 여성은 부모의 남을 여생을 모시는 딸로서, 남편의 후원자,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아내로서, 아들딸을 잘 낳아 기르는 것이 혁명임무인 어머니로서 존재할 뿐이다. 결국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의 삶이 가장 큰 행복이며 꿈이라고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가정의 사적인 영역에 뿐만 아니라 공적인 사회에서도 남성 일군의 보조자·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여성상은 유교적 전통에서의 어머니상과 매우 유사하다. 북한사회는 특히 '모성'에 대해 숭고한 사명이며 영예로운 일이라며 강조한다. 특히 '강반석녀사'는 북한여성들의 이상적 어머니상으로 칭송되고 있으며, 「교과서」와 「조선녀성」을 통해 교양과 홍보로써 현실 여성의 모습으로 재생산되고 있

다. 이러한 여성상의 교육은 대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순종과 희생으로 가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던 조선시대의 여성 덕목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교과서」와 「조선녀성」에 그려진 북한 여성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 교육내용에 담겨져 있는 여성의 모습은, 북한이 교육의 목표로 제시했던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이기보다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희생적인 어머니 역할을 담당할 전통적인 여인상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상'은 사물의 그대로를 나타내는 '실상'이라는 의미와 사물의 모습을 왜곡되게 비추는 '허상'으로서의 개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여성상' 역시 한 사회의 여성들의 현실적 삶과는 거리가 있는 이상적인 허상의 담고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교과서」와 「조선녀성」에서 제시하는 여성상은 북한 여성들의 현실적 삶에 대한 전체적 그림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 왜곡되거나 혹은 이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허상에 가깝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전통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아버지=수령, 어머니=당'으로 인식한다. 이는 사회를 '대가정'으로 보고, 대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수령에 대한 충성을 여성교육에 그대로 관철시킨다. 따라서 북한여성은 근본적으로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가정적·모성적 원칙에 지배되고 있다. 이는 북한 사회가 공식적으로 남녀평등의 원칙을 천명하여, 여성을 가사노동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노력해 왔으며, 북한의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을 통해 남성과 동등하게 혁명적 주체로 설 것을 요구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이다.

북한에서 교육되고 있는 여성상이 북한사회가 공식적으로 내세워왔던 남녀평등과 달리 괴리되어 왔다는 사실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많은 준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한다. 북한을 연구하는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통일에 대비하여 55년 분단이 남북한에 가져다준 이질감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동질성 회복에 대해 논의할 때 회복해야 할 동질성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통일이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하나의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모두 높은

교육열과 근면한 노동정신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남북한의 역사와 현실에서 중요한 공통점은 긍정적인 요소에서보다는 부정적인 요소에서 더 쉽게 동질성을 찾을 수 있다. 남북한의 유교문화의 전통적 여성상이 그 좋은 예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동질성은 남북한이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동질성으로 회복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동질적인 측면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향은 피해야 하며 오히려 분단이래 키워져온 이질화된 문화일지라도 장점이 부각되는 측면은 문화의 다양성으로 받아들여 공존의식을 형성해 나가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여성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전통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이들 전통성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여성의 삶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따라야 한다. 앞서 살펴본 북한의 여성상은 유교문화적 전통상으로써 남한의 여성상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남북한 여성상에 동질적으로 나타나는 보조적이며, 수동적인 여성상으로 21세기 통일에 대비할 수 없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는 한반도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반쪽이 아닌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성은 통일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에게 유용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통일한국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형상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위에서 분석한 북한의 여성상이 통일후 우리 사회에 계속 지배적이라면 그 동안 남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쌓아 놓은 성과마저 위협받을 것이다. 따라서 남한 여성만의 노력이 아니라 북한여성과 함께 하여 통일국가에서 소외되거나 희생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과정 속에서 남북한의 상호 여성간의 노력 중의 하나로 남북한 여성교류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남북한 여성교류는 남북한 상호 교류 중의 하위 정책으로써 정치·군사·외교 등의 상황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므로 주도적이면서 능동적인 남북한 여성교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 정치적 합의에 의한 하위정책에서 탈피하여 남북한 여성간의 심도 깊은 이해와 공감의 필요하며 일회성이나 행사성으로 그치지

보다는 지속적인 교류를 형성해 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남북한 여성 교류를 통해 남북한 여성들은 상호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류를 진행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남한은 북한이 상대적으로 발전시킨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반면, 북한은 남한에 비해 낙후된 여성에 대한 의식의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통일 한국상은 남녀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남북한 여성은 통일이후 남녀평등에 기초한 통일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일은 정부차원의 노력과 민간 차원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우선 정부에서는 여성들이 통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하여야 한다. 즉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할당제를 통해 보장하여 통일에 관련된 여성정책을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⁸⁴⁾

뿐만 아니라 남북한 여성교류의 장을 더욱 확대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한 여성교류가 정치적인 영향에 좌우되고 있는데 이러한 남북한 여성교류를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개발하여 남북한 여성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여야 한다. 정치적·군사적 영향을 덜 받는 여성들만의 영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여성들만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을 통해 통일에 바람직한 여성상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84) 여성의 통일에 주체적 참여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에 관해서는 장인숙·황애리, “여성의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증적 방안”, 『통일문제연구』, 제12권1호(통권 제33호, 2000년) 참조.

〈참고문헌〉

- 곽분이, “가부장제 문화와 남북한 여성문제,” 『우리문화동질성연구회』, 제1집, (1997)
- 곽삼근, 『여성과 교육』 (서울: 박영사, 1998)
- 국무총리 정무장관 제2실, 『북한여성의 실태』 (서울: 정책자료 90-4, 1990)
- 김귀옥, “북한사회 연구의 동향과 쟁점안,” 『인터넷 검색』, (1998)
- 김귀옥 외,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서울: 대동, 1997)
- 김동규, 『북한학총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9)
- 김영수, “북한의 계급정책과 ‘녀성,’” 『통일논총』, 숙명여자대학교 제11집, (1994)
- 김인영, “북한여성교육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7)
- 김인전, “북한 인민학교 교과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1997)
- 김현숙, “북한문학에 나타난 여성인물 형상화의 의미,” 『여성학 논집』, 제11집, (1992)
-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북한연구』 (서울: 명지대학교, 1998)
- 박미란, “북한의 여성정책에 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 박현선, “북한의 여성조직 ‘조선민주여성동맹,’” 『북한연구 창간호』, (1990)
- 박현선, “여성과 통일,” 『여성과 한국사』, 사회문화연구소, (1993)
- 박현선, “현대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9)
- 손봉숙 외,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 나남, 1992)
-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서울: 한울, 1991) 『연합뉴스』, 1998년 12월 26일자.
- 이경하, “‘로동신문’, ‘조선녀성’에 나타난 북한의 여성상,” 『충남대학교』, (1993)
- 이배용, “유교문화의 전통과 변형속의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1995)
- 이태영, 『북한여성』 (서울: 실천문학사, 1998)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술세미나 자료집, 『북한문화와 여성생활』 (서울: 이

화여대, 1994)

인천교육대학교 통일대비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연구,” (1996. 12)

장인숙·황애리, “여성의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증적 방안,” 『통일문제연구』, 제12권1호, 평화문제연구소, (2000)

조경석, “북한의 고등중학교 국어교과서 분석,” 『강원대학교』, (1996)

조정환, “북한교육의 체제적 성격,” 『통일논총』,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87)

최운실, “북한의 청소년의 과외활동과 사회교육,” 『북한』, (1990)

통일교육학회, “북한교육의 이론과 실제,” (1999. 10)

통일연구원, 『북한동향』 (1999)

통일원 교육홍보국, 『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 (서울: 통일원, 1995)

합인회, “북한여성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창간특집호, 이화여자학원 북한연구협동과정실, (1998)

황은주, “북한 성인여성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94)

〈북한문헌〉

『국어』, 인민학교 1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

『국어』, 인민학교 2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6)

『국어』, 인민학교 3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6)

『국어』, 인민학교 4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7)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리경혜, 『여성문제해결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조선녀성』, 제1호 ~제5호,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99)

『전국어머니대회 문헌집』, (평양: 평양출판부, 196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활동』, 고등중학교 4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활동』, 고등중학교 6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